

##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이 은 주\*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란 교사의 부당한 체벌, 교우관계의 악화와 같이 개인의 적응과정에서 의의있는 변화가 필요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군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란 대인적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지원으로써 지지원(교사, 친구, 부모) 및 지지유형(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에서 표집된 1, 2학년 남학생 288명이었다. 연구결과,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비행을 많이 일으켰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특히 교사와 부모로부터 신뢰와 사랑(정서적 지지), 적절한 조언을 많이 받을수록(정보적 지지), 비행에 적게 가담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델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비행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스트레스의 완화를 통해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군 적게 경험하는 학생들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상관없이 비행을 적게 일으키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으면 비행은 오히려 감소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의 비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국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비행의 관계를 매개mediate 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를 조절moderate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다양한 측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갈등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90%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적응곤란(가정, 학교, 대인관계 문제)을 호소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다양한 심리적인 부적응(신경증, 우울증, 성격장애, 정신편열 등)을 보이고 있다(김광일 외, 1982). 이러한 심리적인 부적응은 단순한 부적응 행동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비행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 발달적 장애, 환경적 영향, 생활 사건, 성격 및 대인관계 등 실로 다양하다. 특히 생활사건은 최근 이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되어 왔다(Kessler, Price & Wortman, 1985). 생활사건 *life event*이란 개인의 적응과정에서 의의 있는 변화를 요하는 사건을 일컫는다. 특히 부정적 생활사건들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으로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와 상호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생활사건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유발요인들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생활사건과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ompas et al., 1989; Dubow & Tisak, 1989).

한편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불안, 우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생활사건이 청소년 비행과 같은 행동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따라서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과 같은 행동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토대로 생활사건의 심각성 정도를 진단하려는 횡단적 기술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대부분이 부적응과 관련된 현상을 기술하는 데 그침으로써 적응수준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들을 가려내고 이 요인들이 부적응에 미치는 인과과정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경향은 생활사건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생활사건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다른 변인들이 관련되어 생활사건의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보고,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대처기제나 적응자원 등에 관하여 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생활사건인 “대학입시에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사건들이 직접적으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이 생활사건들이 개인의 환경적, 성격적 적응자원에 따라서 부적응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인과적 모델을 검증·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귀인양식, 자기효능감, A형 성격 등의 변인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의

부적응 완충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청소년들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행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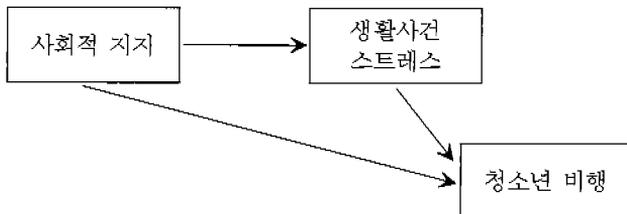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 및 비행은 상호간에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
- 2) 영역별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비행을 예언하는 변량은 어느 정도인가?
- 3) 지지원×지지원유형별 사회적 지지가 비행을 예언하는 변량은 어느 정도인가?
- 4) 사회적 지지와 생활사건은 어떠한 경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연구의 모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델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지지는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2) 생활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3) 사회적 지지와 비행의 관계는 스트레스에 의해 중재 $mediate$ 될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통해 비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조절 $moderate$ 될 것이다.

그림 1: 사회적 지지에서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인과모델



## II. 이론적 배경

### 1.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 위치에서 자아의식과 현실 적응사이에 긴장과 소외, 혼돈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매우 경쟁적인 입시중심의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엄청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과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폭력, 약물남용, 일탈된 성행동, 자살, 혹은 학업동기의 상실 등 청소년 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실태를 보면, 동성친구와의 관계, 학업성적,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신체변화 등에서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중고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 중 강도와 경험빈도가 모두 높은 생활사건은 학업성적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황정규, 1990). 김창기(1992)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사회문제, 진학문제, 친구문제, 이성문제, 가정문제, 용돈문제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이성문제에 대하여,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진학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중학생은 가족관계에, 고등학생은 친구문제에 관심을 보였다(박명재, 1993).

한편 비행이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들로서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여러 환경 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의 73.1%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살기도나 자해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평균 11%로서 여학생(12.3%)이 남학생(9.5%)보다 많았고, 고교생(11.7%)이 중학생(9.9%)보다 더 많았다(한국 YMCA 청소년 상담실, 1990). 흡연과 음주경험 실태는 한국궐뿔조사연구소(1991)의 자료에 의하면, 13세~18세 청소년의 흡연경험은 26.8%이며, 그중 소년의 36.8%와 소녀의 16.3%가 흡연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주경험은 중3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고3에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소년의 행동적 부적응과 비행은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Compas, Howell & Phares(1989)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10세~15세 아동의 내적·외적 행동문제와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9개월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여, 행동 적응에 스트레스가 위험요소임을 제시하였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아동에게서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다양한 생활국면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행동문제를 예언해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상기의 결과처럼 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행동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사회적 지지와 비행의 관계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적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지원으로서(Cohen & Hoberman, 1983), 단일차원이라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House(1981)는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지지(애정, 감정이입), 물질적 지지(물질과 서비스 제공), 정보적 지지(상황에 대한 정보), 및 평가적 지지(자기평가에 관련된 정보)의 네가지 차원에서 하나 혹은 둘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비행간에 부적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부모의 지지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나 애착이 강할수록 자녀의 음주, 비행 등의 비행이 적게 나타났으며(Barnes & Windle, 1987),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청소년의 알코올남용과 비행을 예방해주는 중요한 사회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Barnes & Farrell, 1992). 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았으며(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박탈은 자기 거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Kaplan, Robbins & Martin, 1983). 또한 부모의 지지 혹은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Lefkowitz & Tesing, 1984), 비행(Elliott, Huizing & Ageton, 1985), 약물복용(Penning & Barnes, 1982) 등 다양한 청소년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가 관여적이고 자녀 중심적인 태도로 양육한 청소년은 책임감과 사회적 역량이 높고 성취지향적인데 반해 비관여적이고 부모 중심적인 태도로 양육된 청소년은 충동적이며, 일찍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하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ccoby & Martin, 1983; Patterson, 1982). Bell과 Longfellow(1985)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 하면서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형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자기가치와 낮은 고독감을 보인다고 하였고, Henderson(1984)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와 관심은 아동의 성취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동안 부모 이외의 중요한 사회화 작용을 하게 된다. Barnes와 Windle(1987)에 의하면, 중대한 진로결정과 가치판단이 부모의 의견과 반대될 때 또래의 가치를 따르는 청소년이 불법적인 약물복용, 알콜 사용, 다른 행동문제의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결과를 보면 또래로부터 지지가 거부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욱 공격적임이 나타났고, 청소년 초기에 또래의 지지가 거부된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이후의 행동문제를 예측해준다고 밝혀, 공격성과 또래의 지지거부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Asher & Dodge, 1986; Coie & Dodge, 1983).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교사의 지지가 중요함을 밝힌 연구결과가 있는데, 높은 교사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심리적 우울을 가장 적게 느꼈고, 낮은 가족지지를 받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교사의 지지가 보상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DuBois et al., 1992). 이 결과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새로운 초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가정환경에 핸디캡을 가진 청소년에게 교사의 지지의 효과가 적응에 잠재적인 중요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지행동의 유형을 사회적 지지 구성에 포함시켜 조직하지 않고(예,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 오히려 지지원(또래, 가족, 교사 등)에 의해서만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여 비행 및 부적응 행동을 연구해 왔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 뿐만 아니라 지지유형까지 포함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Dubow & Ulman, 1989; Wolchik, Beals & Sandler, 1989).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지지유형과 지지원을 비행의 다양한 양상과 관련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3. 비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조절효과와 중재효과

스트레스와 적응·부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한 많은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부적응간의 직접적인 상관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r=.30$  이하), 다른 매개변인이 이 두 변수간의 관계에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적응·부적응간의 관계를 조절, 중재하는 스트레스 대처 자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중 사회적 지지가 핵심변수로 주목받고 있다(Kaplan, Robbins & Martin, 1983).

지금까지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부적응과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주효과(*main effect*)가설로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완충효과(*buffering effect*)가설로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요인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다름을 의미한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를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Rutter(1979)는 부모 한쪽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부모간의 불화가 심한 경우와 같이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경우, 적어도 부모 한쪽과 온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들이 그러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아동들 보다 행동문제가 덜 나타난다고 했다. Compas et al.(1986)은 전학, 이사, 진학 등 생활의 변화가 있을 때,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서 불안, 우울, 신체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밝힌 Cohen et al.(198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정서적·정보적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 수준이 낮았으나, 부정적 생활스트레스가 적을 때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상관없이 우울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하느냐 혹은 주효과만을 하느냐 하는 것은 치료적 개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갖는다면 높은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갖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뜻이므로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예방과 치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 두가지 가설 중 어느 하나만을 지지하거나, 두 가설 모두를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Willis, 1985; Cohen & Syme, 1985; Williams, Ware & Donald, 1981). 따라서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하는가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및 비행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변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각각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혹은 중재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절변인(*moderator*)은 독립변인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의 방향이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이에 반해 중재변인

*mediator*은 독립변인에 의해 야기되는 효과가 개인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전달 과정을 통해 종속변인에 대한 원리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일반적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절과 중재는 상호호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개념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Stones,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과 중재의 개념을 통해 구분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비행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고, 둘째, 스트레스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넷째,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각각 조절 및 중재의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들(평균 연령 16세)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중소도시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에서 학급단위로 288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학급단위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했으며 질문지를 답변하는 데 약 40분 가량 소요되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사건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김교헌과 전경구(1993)가 개발한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했다. 생활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가족관계, 동성 친구관계, 이성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문제, 오락 및 여가활용문제, 그리고 일상생활문제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사건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그 사건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전혀(0점), 보통(1점), 혹은 자주(2점)에 답하도록 했다. 아울러 1회 이상 경험한 각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었나를 3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생활

사건의 빈도와 스트레스를 곱한 점수로 나타났다. 전체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4$ 였다.

## 2) 사회적 지지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만든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사회적 지지척도의 구체적 내용을 네가지 지지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지로 사랑, 이해, 신뢰, 관심,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제공 등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적 지지는 칭찬, 소질 인정, 인격 존중, 공정한 평가, 가치 고양, 의사존중 등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부모, 형제, 친구, 교사가 각각 위의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게 느낀다(4점)에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1점)의 4점 척도로 측정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93$ 으로 나타나 바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신뢰도가 .87이었다.

## 3) 청소년 비행

비행에 관한 항목의 선정은 김정원과 오경자(1993)의 25항목, 민병근(1981)의 49항목을 참고로 하여 사소한 비행에서 중한 비행에 이르는 50문항을 작성한 후 현직 고등학교 교사 3인으로부터 문항에 대한 검토를 받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25개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각 비행항목에 대해 전혀 한 적이 없다(1점)에서 매우 자주 했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숨은 비행에 포함된 25개 비행의 빈도가 매우 다르고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권정혜, 김수현, 이봉건(1992)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중치 적용법을 도입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학생들의 자료에서 척도의 25개 각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고, 구해진 평균들을 각 문항의 최고점수인 5에서 뺀 값을 얻어 그 값을 가중치로 삼았다. 이 가중치는 각 자료의 원점수에 곱해지게 되어 빈도가 낮은 항목은 높은 가중치를, 빈도가 높은 항목은 낮은 가중치를 얻도록 했다.

25개 항목의 비행은 비행의 질적인 차이를 기초로 다음의 6개 비행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 폭력비행(구타, 흉기소지, 패싸움 등), 2) 재산비행(절도, 도박 등), 3) 지위비행(음주, 흡연, 술집출입 등 성인들의 경우라면 용납되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는 행위), 4) 쾌락비행(음란비디오, 음란서적 보기, 사창가 출입 등), 5) 가출비행(가출, 무단결석 등), 6) 약물비행(신나, 본드 흡입 등)

### 3. 자료처리 방법

자료의 기본 통계치를 얻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답하기 위해 단순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변량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1은 단순상관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2는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족관계, 일상생활 등 7영역을 예언변인으로 삼고, 비행을 준거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중다상관계수(R), 중다결정계수( $R^2$ ), 및 표준화 회귀계수( $\beta$ )를 산출했다. 그리고 연구문제 3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지지원×지지유형)을 예언변인으로 삼고, 비행을 준거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했다. 연구문제 4에 대해서는 경로분석과 사회적 지지×스트레스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생활사건,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청소년 비행의 상호관련성

우선 본 연구의 기초통계자료로서 사회적 지지, 생활사건, 및 비행 변인의 평균치(M), 표준편차(SD), 및 상호상관계수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인별 기초통계 자료와 상호상관

변 인	$\alpha$	N	M	SD	생활사건	사회적지지	비행
1. 생활사건	.84	284	5.84	2.26	—	—	—
2. 사회적지지	.87	288	2.89	.52	-.37***	—	—
3. 청소년 비행	.82	288	5.30	2.08	.46***	-.24***	—

\*\*\* p<.001

생활사건, 사회적 지지 및 비행은 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상호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스

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비행에 적게 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와 비행의 상관( $r=-.24, p<.001$ )을 지지원별로 살펴보면, 형제( $r=-.02$ )나 친구( $r=.15$ )의 지지보다 교사( $r=-.42$ )와 부모( $r=-.26$ )의 지지가 비행과 높은 관련을 보였다.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상관( $r=.46, p<.001$ )을 생활사건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사와의 문제( $r=.50$ ), 학업문제( $r=.33$ ), 동성친구( $r=.41$ ), 여가생활( $r=.32$ ), 및 일상생활( $r=.23$ ) 영역의 생활사건들이 청소년 비행과 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교사 및 친구와 관련된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비행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도 관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생활사건 및 그 하위요인들에 의한 비행의 중다회귀분석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비행을 예언하는 변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예언 변인으로 하고, 비행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표준standard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역별 스트레스는 비행의 전체변량의 25%를 설명하였다( $F(7, 196)=9.98, p<.001$ ). 이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들이 청소년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은 전체 생활사건 영역중 특히 어떠한 생활사건이 각 비행을 예언하는 데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생활사건의 7개 하위요인(영역별 생활사건)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

표 2: 비행에 대한 영역별 생활사건의 중다회귀 분석 결과

영역별 생활사건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페락비행	가출비행	약물비행	전 체
학 교 가 동 성 친 구 이 성 친 구 일 상 생 활 여 가 생 활	.44***	.37***	.36***	.21**	.31*** .16*	.27***	.35***
	.15*			.41*** -.16**			.23**
						-.17*	
R	.53***	.37***	.36***	.53***	.35***	.25***	.50***
R <sup>2</sup>	.28	.13	.13	.28	.12	.06	.25

표에 제시된 수치는 Beta값을 나타낸다.

\*\*\*  $p<.001$  \*\*  $p<.01$  \*  $p<.05$

어 있다. 먼저, 폭력비행의 경우 교사( $\beta=.44$ ) 및 이성친구( $\beta=.15$ )와 관련된 생활사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이 폭력비행 변량의 28%를 설명하였다. 재산비행과 지위비행의 경우, 교사와 관련된 생활사건만이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으로 재산비행과 지위비행을 각각 13%씩 설명하였다.

쾌락비행의 경우, 이성친구( $\beta=-.16$ ), 동성친구( $\beta=.41$ ), 및 교사( $\beta=.21$ )변인이 전체변량의 28%를 설명하였다. 특히 다른 유형의 비행과는 달리 교사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 동성친구와의 스트레스가 쾌락비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성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오히려 쾌락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비행의 경우 다른 준거변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가족관련 스트레스( $\beta=.16$ )가 가출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변인( $\beta=.31$ )과 함께 가출비행 전체 변량의 12%를 설명하였다. 약물비행의 경우 학업( $\beta=.27$ )과 일상생활( $\beta=-.17$ )변인이 전체 변량의 6%를 설명하였다. 다른 준거변인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했던 교사와 관련된 생활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비행 전체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 $\beta=.35$ )와 동성친구( $\beta=.23$ ) 생활사건이 잠재적 비행의 25%를 설명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며, 특히 동성친구 및 교사와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3. 사회적 지지와 그 하위요인들에 의한 비행의 중다회귀분석

사회적 지지(지지원 $\times$ 지지유형)가 비행을 예언하는 변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비행의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F(16, 239)=13.25, p<.001$ ). 다음으로 누구로부터의 어떤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비행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16개 하위요인(지지원 $\times$ 지지유형)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폭력비행의 경우, 부모의 정보적 지지( $\beta=-.25$ ), 교사의 평가적 지지( $\beta=-.55$ ), 친구의 정서적 지지( $\beta=.36$ ), 및 형제의 평가적 지지( $\beta=.44$ )와 정보적 지지( $\beta=-.20$ )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와 형제의 평가적 지지가 중요하였다. 이들 5변인들이 폭력비행 전체 변량의 41%를 설명하였다( $F(5,246)=34.25, p<.001$ ). 그런데 흥미롭게도 교사의 평가적 지지는 폭력비행과 부적인

표 3: 비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지지원×지지유형)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왜락비행	가출비행	약물비행	전 체
부모							
정서적							
평가적			-.43***		-.51***	-.26**	-.31***
정보적	-.25***	-.43***					-.25***
물질적				-.14*			
교사							
정서적							
평가적	-.55***	-.61***		-.26**			-.56***
정보적			-.61***	-.25**	-.59***		
물질적							
친구							
정서적	.36***	.32***			.25***	.27**	.26**
평가적				.17*			
정보적							
물질적		.17**	.37***	.15*		.27**	.26**
형제							
정서적							
평가적	.44***	.69***	.54***		.46***		.51***
정보적	-.20*		-.49***			-.26**	-.32***
물질적							
R	.64***	.65***	.61***	.51***	.69***	.57***	.64***
R <sup>2</sup>	.41	.43	.37	.26	.47	.32	.32

표에 제시된 수치는 Beta값을 나타낸다.

\*\*\* p<.001 \*\* p<.01 \* p<.05

관련을 보이는 반면, 형제의 평가적 지지는 오히려 폭력비행과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 즉 교사로부터 자신의 소질을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며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비행을 적게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오히려 비행에 많이 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비행의 경우, 부모의 정보적 지지( $\beta=-.43$ ), 교사의 평가적 지지( $\beta=-.61$ ), 친구의 정서적 지지( $\beta=.32$ )와 물질적 지지( $\beta=.17$ ), 형제의 평가적 지지( $\beta=.69$ )와 정보적 지지( $\beta=-.49$ )가 전체 재산비행변량의 43%를 설명하였다. 특히 중요한 변인으로는 교사와 형제의 평가적 지지를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의 폭력비행에서와 일치한다.

지위비행의 경우, 부모의 평가적 지지( $\beta=-.43$ ), 교사의 정보적 지지( $\beta=-.61$ ),

친구의 물질적 지지( $\beta=.37$ ), 형제의 평가적 지지( $\beta=.54$ )가 전체 지위비행 변량의 37%를 설명하였다. 특히 교사의 정보적 지지가 지위비행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부모와 교사의 지지는 지위비행과 부적인 관련을 보이는 반면, 친구와 형제의 지지는 오히려 지위비행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다. 즉 부모와 교사의 지지는 비행을 감소시키는 반면 친구와 형제의 지지는 오히려 비행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위의 폭력 비행에서와 일치한다.

쾌락비행의 경우, 부모의 물질적 지지( $\beta=-.14$ ), 교사의 정서적 지지( $\beta=-.26$ )와 정보적 지지( $\beta=-.25$ ), 그리고 친구의 평가적 지지( $\beta=.17$ )와 물질적 지지( $\beta=.15$ )가 전체 쾌락비행 변량의 26%를 설명하였다. 교사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가출비행의 경우, 부모의 평가적 지지( $\beta=-.51$ ), 교사의 평가적 지지( $\beta=-.59$ ), 친구의 정서적 지지( $\beta=.25$ ), 형제의 평가적 지지( $\beta=.46$ )와 정보적 지지( $\beta=-.26$ )가 전체 가출비행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 대체로 평가적 지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교사의 평가는 부적인 관련을 보인 반면, 형제의 평가적 지지는 오히려 비행과 정적인 관련을 나타내고 있다.

약물비행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지( $\beta=-.26$ ), 친구의 정서적 지지( $\beta=-.27$ ), 물질적 지지( $\beta=.27$ )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약물비행 변량의 32%를 설명하였다. 특히 친구의 지지가 약물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친구들부터 관심과 사랑, 신뢰를 받을수록 약물비행에 적게 가담하지만, 물질적 지지를 받을수록 오히려 약물비행을 많이 일으킨다.

비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평가적 지지( $\beta=-.31$ )와 정보적 지지( $\beta=-.25$ ), 교사의 평가적 지지( $\beta=-.56$ ), 친구의 정서적 지지( $\beta=.26$ )와 물질적 지지( $\beta=.26$ ), 그리고 형제의 평가적 지지( $\beta=.51$ )와 정보적 지지( $\beta=-.32$ )가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비행변량의 32%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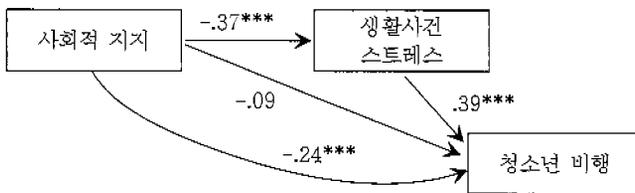
이상의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부모와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비행을 적게 일으킨다. 특히 평가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비행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 교사로부터 신뢰와 관심, 사랑을 받을수록(정서적 지지), 그리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받기에 막힘이 없을수록(정보적 지지), 학생들은 비행에 적게 가담한다. 한편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

일수록 비행을 많이 일으키며, 특히 정서적·물질적 지지가 비행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

4. 비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중재효과와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와 생활사건은 어떠한 경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와 비행의 공변량(-.24)의 대부분은 사회적 지지가 생활사건을 통해 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37×.39=-.14)이며, 비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09에 불과했다.

그림 2: 사회적 지지에서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비행을 적게 일으키는데, 이것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의 완화가 비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극히 적은 수준으로 영zero에 근접하고 있다는 결과는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비행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 비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 인	R <sup>2</sup>	ΔR <sup>2</sup>	F	Beta
1	사 회 적 지 지	.056		17.11	-.06
2	스 트 레 스	.208	.15	74.49	.45***

\*\*\* p<.001

따라서 스트레스가 중재자로서 기능하는 가를 검증해보기 위해 비행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를 넣고 다음에 스트레스를 첨가하였다. 그 결과 2단계로 첨가된 스트레스는 비행의 21%를 설명하였으며, 그 설명량은 유의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스트레스의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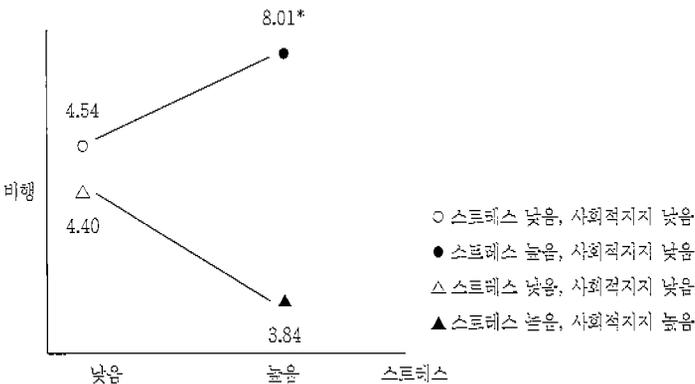
명량은 유의한 반면, 스트레스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중재자mediator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 보다는 스트레스의 완화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완충작용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점수에 대해 백분율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각각 상·하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비행에 대해 스트레스(상, 하)와 사회적 지지(상, 하)의 2×2 ANOVA를 실시하였다. 만일 비행에 대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가 비행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지지가 조절자moderator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01수준에서 유의한 완충작용을 했다. 그림 3은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인데,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상관없이 비행이 적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학생들의 비행은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은 학생들의 비행의 수준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지지원별로 살펴보면 교사와 부모의 지지는 유의한 완충효과를 나타낸 반면, 형제와 친구의 지지는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비행을 규제하는 데 특히 교사와 부모의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집단별 비행의 수준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지지 및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데 있었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와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모두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사건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사건과 부적응, 특히 우울증이나 고독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해 왔다. 그런데 본 연구는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소년 비행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어왔던 사회적 지지( $r=-.24$ )보다 생활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r=.46$ )가 비행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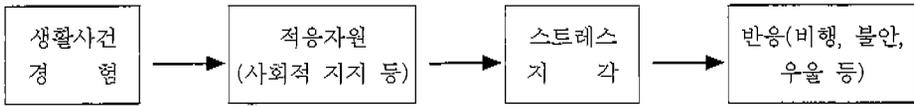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학생들은 그로인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비행을 통해 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 영역별 생활사건들 가운데 교사 및 친구와 관련된 생활사건들이 비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특히 교사의 무관심, 차별대우, 학생의 인격무시, 편파적 성적평가 등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폭력비행, 재산비행, 지위비행 등 다양한 형태의 비행에 폭넓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특히 교사와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비행에 적게 가담했다. 즉 부모와 교사로부터 신뢰와 관심, 사랑을 받을수록(정서적 지지), 그리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충분히 받을수록(정보적 지지), 학생들은 비행에 적게 가담한다. 이것은 앞서 교사로 인한 부정적 생활사건이 비행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교사와 부모의 지지가 비행을 제지하는 것과는 달리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비행을 많이 일으켰으며, 특히 정서적·물질적 지지가 비행과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지지를 통해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따라서 또래들의 비행문화에 쉽게 동조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서 비행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비행을 제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비행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서, 일

반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를 중재하고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에 대해 본 연구는 비행에 대한 생활사건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4: 비행에 대한 생활사건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즉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사회적 지지 등의 적응자원에 따라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이 완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적 반응도 달라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비행에 대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생활사건에 대한 지각의 변화(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생활사건과 생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적응자원이 이들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비행으로 표출되는 것을 완화해주는 완충기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커진다. 즉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상관없이 비행을 적게 일으킨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비행은 감소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의 비행수준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비행에 대한 교육적 예방과 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은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교사나 부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학생은 대부분 교사나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더욱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극히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비행을 통해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학생들일수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와 부

모의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므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과 상관없이,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과 예비조사를 통해 영역별 생활사건의 목록을 만들어 조사대상자들에게 제시하였으므로 청소년 개개인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질문에 포함되지 못한 요인들은 분석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사회관계망 *social network* 및 지지원의 특성은 실업계 여고생들 혹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흔히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종류와 스트레스 수준 역시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인문계 고등학생 및 여고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힘으로써 청소년 지도의 방향을 시사한데 의의가 있다.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 교사와 부모의 평가적·정보적 지지의 충분하고 적절한 제공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비행을 제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비행제지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지도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권정혜·김수현·이봉건(1992), “청소년 초기에 나타나는 비행 및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 「청소년의 의식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광일·원호택·김이영·김영경(1982),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정신건강연구」, 1, pp. 1-40.
- 김교헌·전경구(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2(2), pp. 197-217.
- 김정원·오경자(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2

- (2), pp. 126-141.
- 김창기(1992),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적응방법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병근(1981), "청소년 범죄에 관한 정신의학적 고찰," 『오늘의 청소년(5집)』, 중앙대학교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
- 박병재(1993), "중·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유형과 강도,"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1990), 「청소년 자살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
- 한국 갤럽조사연구소(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 Asher, S. & Dodge, K.(1986),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pp. 444-449.
- Barnes, G. & Farrell, M.(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pp. 763-776.
- Barnes, G. & Windle, M.(1987), "Family factors in adolescent alcohol and drug abus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Health*, 14, pp. 13-18.
- Baron, R.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 1173-1182.
- Bell, D. & Longfellow, C.(1985), *Confiding as a coping strategy*, Unpublished manuscript, Boston University.
- Cohen, L.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pp. 99-125.
- Cohen, S., Mermelstein, R. Kamarck, T. & Hoberman, H.(1985), *Measuring the functional components of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Nijhoff.
- Cohen, S. & Wills, T.(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pp. 310-357.
- Cohen, S. & Syme, S.(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3-23.
- Coie, J. & Dodge, K.(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5-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pp. 261-282.

- Compas, B., Howell, D. & Phares, V.(1989), "Perspectives on child behavior problems: Comparisons of children's self-reports with parent and teacher repor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pp. 68-71.
- Compas, B., Howell, D., Phares, V., Williams, R. & Giunta, C.(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young adolescents: A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pp. 732-740.
- Compas, B., Slavin, L., Wagner, B. & Vannatta, K.(1986), "Relationship of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with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pp. 205-221.
- DuBois, D., Felner, R., Brand, S., Adan, A. & Evans. E.(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pp. 542-557.
- Dubow, E. & Tisa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pp. 1412-1423.
- Dubow, E. & Ulman, D.(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pp. 52-64.
- Elliott, D., Huizing, D. & Ageton, S.(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CA: Sage.
- Felner, R. & Ginter, M. & Primavera, J.(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pp. 277-290.
- House, J.(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 Kaplan, H. & Robbins, C. & Martin, S.(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pp. 93-115.
- Kessler, R., Price, R. & Wortman, C.(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7, pp. 541-572.
- Lefkowitz, M. & Tesing, E.(1984), "Rejection and depression: Prospective and contemporaneou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pp. 776-785.
- Maccoby, E. &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Patterson, G.(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Penning, M. & Barnes, G.(1982), "Adolescent marijuana use: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17, pp. 749-791.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Kent and J.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 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London: Univ. Press of England, pp. 49-74.
- Stones, A.(1985), "Assessment of coping efficacy: A commen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8, pp. 117-155.
- Williams, A., Ware, J. & Donald, C.(1981), "A model of mental health,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applicable to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pp. 324-336.
- Wolchick, S., Beals, J. & Sandler, I.(1989), "Mapping children's support network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Bell, D.(Eds.),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NY: John Wiley & Sons.

## ABSTRACT

### **The Influence of Life Event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Juvenile Delinquency**

Lee, Eu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life event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juvenile delinquency. This study examined the variance of delinquency explained by life event stress and by social support. And the causal path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to delinquency was examined. Subjects were 288 10th and 11th graders enrolled in 3 vocational high schools. Results showed that stress of teacher-related and friend-related life events were highly related with delinquency. And high social support, especially high affec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support from teacher and parents lowered the level of delinquency. Results of path analysis showed that social support lowered the delinquency level by reducing life event stress, rather than directly affected delinquency. Although students' high stress resulted in high delinquency, its effect on delinquency varied with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That is, students with low life event stress showed less delinquent behavior regardless of the their perceived social support. However students with high stress showed less delinquent behavior as they perceived high social support, whereas they showed delinquent behavior twice as much when they perceived low social support. This study concluded that life event stress mediated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delinquency, while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influence of life event stress on delinqu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preliminary basis for understanding of the adolescence and their adjustment.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adolescent guidance are discussed.